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2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마태복음 강해

###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마 6:9-11)

###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Matt. 6:9-11)

주기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3가지 청원, 곧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함, 아버지의 나라의 도래, 아버지의 뜻의 성취를 위한 청원,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위한 3가지 청원으로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에서의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Lord's Prayer consists of four Parts. The first is the target of prayer. The second are three entreaties to God, into the holiness of His name, the coming of His Kingdom, and the accomplishment of His will. The third is the extension of the three entreaties into our own lives which involves our subsistence, our daily bread, the forgiveness of sins, and our protection and deliverance from evil. And the last, the fourth is a doxology for praising the Kingdom, power, and glory of God.

#### 1. 오늘을 위한 기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히 3:13)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고,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헌신하며, 오늘 봉사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 2.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정부이든 굶는 백성들이 있다면 그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이며, 북한정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3. 우리를 위한 기도

주기도에는 ‘우리’ 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 라고 부르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로 만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 가 아닌 ‘우리’ 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죄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35).

우리는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연합함으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께 의지하여 구하시고 이웃과 마음껏 나누시므로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1. The prayer for today

Today is the most important time for us. What effects our happiness the most is living lives while dwelling the past.

The writer of the book of Hebrews says, “But encourage one another daily,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so that none of you may be hardened by deceitfulness” (Heb. 3:13).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we should remember the past and God's promise to come in the future. However, the Bible also tells us that we should, first of all, live our life today by focusing on the things of the day. We must live our life to do our best today by loving today, making a commitment today, and serving people today.

#### 2. The prayer for our daily bread

Praying asking for our daily bread is our confession of a life and existence that depends on God. We can never be free from depending on food. If any government has its people starve, must be a government that has failed. In this sense, the communists have politically failed, and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the most failed state in the world.

However, we never forget that daily bread is not only limited to material wants, but also extends to the most necessary bread for us which is every day coming to Jesus Christ, relying on Him, and seeking Him.

#### 3. The prayer for us

The word ‘we’ appears seven times in the Lord's Prayer. God says, in Genesis 1,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nd in our likeness.” God in the Bible who calls Himself ‘we’ is the God of community. God feels very happy when ‘we’ meet each other.

Daily bread means our material blessings. Jesus teaches us that we should pray for not ‘me’ but ‘us’ in order to get our daily bread. And so also regarding sins. We should carry our sins together. We are ‘a group of community bound together by a common destiny.’

#### My beloved Christians!

The most necessary bread for us is Jesus Christ.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I am the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r” (John 6:35).

Every day by coming before Jesus Christ, eating, drinking together with Him, and uniting together, I hope you will live a wonderful and victorious life.

By relying on and asking Jesus Christ, and sharing with neighbors our daily bread with joy every day,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enjoy the happiness and pleasur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개강

9월 3일(월) - 11월 11일(주일) (10주간)

제42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가 "전도와 교회성장"을 주제로 9월 3일(월)부터 11월 5일(월)까지 10주간 웨스트민스터 홀(101호)에서 열린다. 1교시(오후 2시-3시 30분)는 김정우 교수의 창세기 강해(12-50), 2교시는 주제에 따라 강사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학기 2교시 강의는 전도 특강이므로 70인전도대 및 일반 성도들도 들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하반기 열린프로그램도 9월 3일(월)에 개강하여 11월 11일(주일)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성도들과 지역주민들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준비되고 있다. 열린 프로그램 일정은 하단을 참고하기 바란다.

천국시민을 양성하고 만민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될 2012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주	월/일	주 제	강 사
1	9/3	파워 관계 전도법	송기배 목사 (가정사랑학교 대표)
2	9/10	아파트 전도법	김인아 목사 (구하리교회)
3	9/17	진돗개 전도법	박병선 집사 (순천순동교회)
4	9/24	해피데이 전도법	김한옥 목사 (세안양교회)
5	10/1	휴 강 (추석 연휴)	
6	10/8	빌립 전도법	변은미 전도사 (빌립 전도협회 대표)
7	10/15	전도? 전도! 전도...	김문훈 목사 (포도원교회)
8	10/22	WEA(세계복음주의연맹)- WCC(세계교회협의회) Dialogue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원로,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9	10/29	오이코스 전도법	이상만 교수 (오이코스코리아 대표)
10	11/5	예심 전도법	김기남 목사 (부천예심교회)

강 좌	요일 및 시간	담 당	장 소
성경 로마서 반	월, 오전 10:00-11:00	서명철 목사	602호
과목 마가복음 반	목, 오전 6:00-7:00	박진아 목사	602호
(10주) 느헤미야 반	금, 오전 6:00-7:00	정수길 목사	602호
성경통독 반(10주)	목, 오전 10:30-12:00	황 광 목사	602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9호
주중 교사 양성반	금, 오후 7:00- 8:00	교역자 전체	503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20-4:30	교역자 전체	607호
주부대학	화, 오전 10:00-오후 1:00	한상은 목사	6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꼬꼬마가베 학교	목, 오전 10:00-12:00	최인에 전도사	706호
영어성경공부반	수, 오후 8:30-10:00	Steven Martinolich 목사	603호

서울음악교실(10주간)	주일, 오후 1:30-3:00 (9/9 - 11/11)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 (5주간)	주일, 오후 12:30-1:30 (9/9 - 10/14)	한상은 목사	905호
수화교실 초, 중급반	주일, 오후 12:50-1:50(초급반) 주일, 오후 4:00-4:50(중급반) (9/2 - 12/9)	임규현 목사	606호

## 김문훈 목사 초청, 금요기도회 9월 14일(금) 오후 8시 20분

김문훈 목사(포도원교회) 초청 금요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영적 도전과 충전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



김문훈 목사

- 고려신학대학원(M. Div.) 졸업
- 고신대학교 대학원(Th. M.) 졸업
- 고신외과대학교, 간호대학 교목 역임
- CTS TV 밀레니엄 특강 강사
- CBS TV 파워 특강 강사
- C3 TV 명설교 강사
- 부산 포도원교회 담임목사

## 8월 학습, 세레자 명단

세레(5명) : 박윤지 오태연 이우태 정지아 한정민  
입교(4명) : 김보영 남유라 엄용현 이수민3  
학습(9명) : 강예선 강주현 김민석1 김주연3 박동설 임선택 장형준1 최은영8 한재규

## 소요리문답부 개강

9월 2일(주) 오후 12시 40분, 601호

그간 1학기 수업을 마치고 방학으로 휴강하였던 소요리문답부가 2학기 수업을 개강한다. 개강일은 9월 2일이고 시간과 장소는 매주 일 12시 40분 부터 601호실이다. 기존 등록생 외에도 신규로 소요리문답 학습을 원하는 성도도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성경암송대회



올리고 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바란다.

2012 성경암송대회가 오는 10월에 열린다. 암송범위는 빌립 보서 1-4장(전장)이며 10월 14일(주) 각 교회학교 별로 예선을 치르고 10월 19일(금) 오후 7시 602호에서 본선을 갖는다.

특히 IT 미디어부(부장: 오정수 장로는 교회 페이스북에 매일 성경을 그림큐티로 한 구절씩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62]

(문 59)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하다고 했는데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 5:6-21에는 약간 변형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 : 신명기서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세 책(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풀어 쓴 것입니다. 이 세 책에 있는 말씀을 축자적으로 반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광야 40년 동안 신세대들에게 그들의 교훈을 설교체로 또는 충고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레위 지파가 아닌 회중에게 격려하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달리 아주 예외적인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십계명은 레위기나 민수기의 것과 표현상으로는 다른 것이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근본적 교훈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십계명의 경우를 보면 출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신명기 5장은 이와 비슷하게 접근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도 모세는 더하거나 빼는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말씀할 때 출 20장이나 다른 책에 그 말이 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 자신의 계시된 말씀으로부터 인용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신 5:5)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계명과 관련된 말씀에서 6일 창조에 대한 언급이 빠졌습니다. (출 20:11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 마지막에 출 13:3 말씀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로 말씀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할 때 사랑과 친절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교훈에서 창조 날들을 빼버린 것은 실제적 차별이라기 보다 간소화 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어순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출 20:17에서 아내 앞에 집이 나오지만 신 5:21에서는 집 앞에 아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어 나 의미는 같으나 순서가 다른 것 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집 앞에 쓰여진 탐낸다는 말이 신 5:21에서 tahmod 대신 titawweh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의미는 같습니다. 출 20:17에 있는 tahmod보다 신명기 표현이 더 좋은 표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신명기서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특별히 설교적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주 계속)



선교사 도고팀 탐방

# 복음의 불모지 일본 선교를 위하여

아시아 대륙 동쪽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4개로 된 섬나라 일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해 흔히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컫는다.

누군가에게 거저 받지 못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란 값 없는 사랑이 그들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주는 것에는 익숙하고, 대가없이 받는 것에는 이상하리만큼 큰 불편함을 가지는 일본인. 이들 대다수가 두 가지 이상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전체인구의 1%가 채 되지 않는 복음의 불모지인 나라 일본으로 파송된 허창범·현미순 선교사를 위해 도고하는 '일본도고팀'이 있다.

일본 도고팀은 주일 오후 1시30분 604호에서 일본어 찬양을 배우는 걸로 모임이 시작된다. 권소희 집사(도고팀장)는 "선교나 전도만큼 시급하고 가치 있는 건 없다.

우리 일본도고팀은 지금 에스더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일본으로 선교를 보내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하

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따스한 사랑으로 연결된 일본도고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독교가 정체의 위기를 넘어 소멸되어가고 있는 나라 일본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허창범·현미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허창범·현미순 선교사 기도제목

- 성령충만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 개척준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9월부터 우에다계 유치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예정)
- 오미야, 우에다계, 시라 유치원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 오미야 교회의 성전건축과 제자훈련을 위해
- 일본기독교단과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일본기독교단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와 교단이 되도록

최진경 성도(편집부)



2012 사랑의바자

## 사랑의바자 특판실시

2012 사랑의 바자 축제는 올해부터 선물용 상품으로 특판을 실시합니다

무더운 8월을 뒤로하고 우리의 마음 설레게 하는 중추절!

우리나라에는 추석에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마음과 뜻을 담아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습니다.

사랑의 바자를 이용하시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 조그만 정성과 사랑으로 국내의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으니 일거양득입니다.

우리모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참 감람 나무의 구루터기가 되어 2012 바자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주일예배, 수요일예배후 (1, 8층) 특판문을 받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바자, '사랑 나눔 A+'의 모금을 시작하여 사랑의 온도계 수온주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 9-2 다락방 모임을 마치고

## 9-2 다락방의 영성수련회

### 조상계 집사(9교구)

9-2 다락방은 자양, 성수, 마장, 옥수, 금호동 지역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약 15명의 부부가 모여 찬양, 말씀 공부, 뜨거운 기도, 그리고 웃음 넘치는 교제 시간을 갖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저희들은 8월24일~25일까지 경기도 양평 산음휴양림에서 12명의 부부가 함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24일 도착 후 다락방장님의 인도로 예배를 드린 후, 손종근 집사님 부부가 준비하여 고기, 새우, 닭갈비 메뉴로 훌륭한 바베큐 파티를 하였습니다. 제 평생 가장 즐겁고 맛있는 바베큐 파티였습니다.

저녁식사 후, 신앙간증순서는 가정사역을 주제로 송인수 집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는데 가정은 왜 만들어졌는지, 가정에서 받은 상처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넘어 팀별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김철수 집사님의 신앙간증시간, 가족의 기도와 권면으로 아버지 학교를 다녀와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일과 다락방모임에 참석 후 신앙과 가족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은 김집사님뿐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이선 권사님의 전도사역 간증에서 여러 건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예수님을 항상 전해야 하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함을 깨닫는 귀한 영적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25일 아침, 다락방장님의 인도로 QT를 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휴양림 산책 때는 울창한 숲속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감사드렸습니다. 삼림욕도 하고, 시원한 계곡물에 발도 담그고, 신혼부부처럼 부부끼리 사진도 찍고, 유명한 약수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출발부터 귀가까지 은혜와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수련회였습니다.

### 노물반석교회 증축 감사 예배 9월5일(수) 오후2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여 교회를 증축하고 사택 구조 변경을 한 노물리 노물반석 교회(경북 영덕읍 노물리 소재)가 오는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감사예배를 드린다.

박노철 목사님은 "만세반석"이라는 제하의 예배 설교를 담당한다.

생애 첫 주일예배를 드리고

# 가정에 주신 선물 보화(寶貨)

## 천정윤 집사(12교구)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 딸 보화(寶貨)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미리 허락하신 발에 감추인 보화, 즉 천국을 의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직장에서 퇴근한 후보화를 보고 있으면 천국에 있는 듯 합니다. 힘든 야근이 계속되어도, 아무리 회의가 지루하고 길어도, 보화 생각만 하면 힘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쳐다만 보아도 그렇게 딸이 예쁘기만 합니다. 누가 저에게 딸바보라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화를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바르게 키우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부모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부모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며 우릴 키우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으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부모로서 연습과 훈련, 희생과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날까지 성화되는 삶의 여정이 필요함도 깨닫게 됩니다.

지난 6월 24일 보화가 주일예배시 박노철 목사님



께 축복기도를 받았습  
니다. 기도를 받는 동안  
'보화를 진실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키워야 하  
겠다' 라는 결심을 했습  
니다. 때때로 세상적 유  
혹을 받더라도 그 순간  
을 기억하며 반드시 하  
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선  
섬세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  
분에서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이끌고 계심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단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선택해주  
시고 사랑해주시며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 저희 가정에 보화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보화와 저희 가정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것을 이루  
는 복된 가정 꼭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  
상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주세  
요. 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  
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시은찬양대(부장: 이영기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최유현 집사의 지휘로 "법궤를 메고 가는 노래 (김은석 곡)", "마른뼈들(Mark Hayes 편곡)", "성자들이 행진할 때(John Rutter 편곡)" 등 세 곡을 찬양 드린다.

오르가니스트 김진형 성도, 피아니스트 박승기 성도 그리고 타악기에 윤주일 집사(가브리엘찬양대 팀파니스트)가 함께 연주한다.

##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3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서울 장신대대학원에서 강의를 한다. 9월4일(화) 장신대 채플설교를 한다.
- 김안성 목사(유년부 지도)는 지난 8월 26일부로 준 전임 교역자로 임명되었다.
- 전시 : 15교구 전광영 집사 뉴욕과 메릴랜드 전시회 차 9월 3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17일 귀국한다.
- 이사 : 6교구 최성을 집사 박진희 집사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the # 퍼스트월드 3동 2301호
- 이사 : 9교구 장애순 집사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아름마을 LG아파트 204동 701호
- 주간식당봉사: 제1스데반회(9.2) 제2스데반회(9.9)
- 금주의 식사: 김관철 집사(김관일, 김관영, 김관선)가정 - 어머니(함송현 권사)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나눔과 섬김의 기쁨

제42학기 목회자 신학 세미나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나눔의 집도 한층 바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집이 확장 운영되면서 요즘 나눔의 집을 찾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물품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오신 김에 쇼핑도 하시고...

지난 주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촌 교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회자 신학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농촌 목회자들께서 나눔의 집을 더욱 많이 이용하실 터인데 부지런히 나눔의 집을 채워놓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나눔의 집을 통하여 농촌교회에 도움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느 품목이든 환영합니다. 특히 남자 양복과 구두를 부탁드립니다.

-제1권사회-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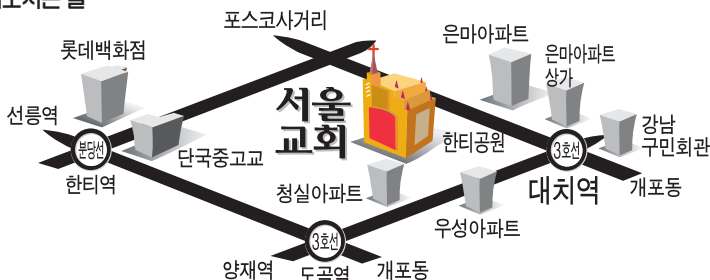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종윤 원로 목사님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복음의 열매 풍성하며 한국장로교회의 한교단 다체제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2. 목회자 신학세미나,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꿈나무 영어 성품스쿨, 그리고 사랑의 바지를 통해 교회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3. 태풍과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어린이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빠른 복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